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 연구

현시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이 글은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지역학의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1940년대부터 급성장한 북미지역의 지역학이 제기했던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연구의 방향성 문제, 그리고 윤리성과 실용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1990년대의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들의 지역학의 현지화 노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서, 토착 학자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후반부는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담론들과 문제점들이 앞서 논의한 쟁점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한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지역학, 정체성, 지속가능성, 담론 연구

I. 서문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 여러 차례 받은 질문은 “동남아시아를 공부해서 무엇하겠는가”였다. 지금은 한국 내에서도 동남아시아학은 하나의 독립된 지역연구로 인정을 받고,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연구자 커뮤니티의 규모는 작고, 지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 전문화된 학과도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전제성 외 2021: 2; 김동엽 2021: 36). 필자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학 총론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된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수십 명의 전임교원과 전공생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의 연구 환경과는 달리, 그러한 자원이 부재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배움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둘째, “한국의 관점”을 통해 보는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그림자가 긴 미국과 유럽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대동아 공영권 건설과 같은 과거의 짐이 있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강자를 꿈꾸는 싱가포르와 호주의 동남아시아 지역학과는 차별되는 특수한 의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이 논문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¹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 학계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발전해 온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글의 전반부에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학의 발전과 위기에 대한 담론을 정리한 뒤, 후반부에서는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당면한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급변하는 21세기의 환경 안에서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지향해야 할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간략하게나마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발전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이 시기에 급성장한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계 내에서 제기된 “자주적 역사 쓰기”와 “태국 논란”으로 표출된 지역학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담론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1990년대 냉전의 종결과 함께 등장한 소위 “지역학의 위기” 담론과 관련하여 지역학의 “탈중심화(decentering)”와 “현지화(localization)” 혹은 “아시아학의 아시아화(Asianization of Asian Studies)”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배경과 그 전개 상황을 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이 당면했던 “소속감(sense of belonging)”과 정체성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기존의 서구 중심의 지역학, 특히 아시아학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와 “글로벌 아시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IV장과 V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학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쟁점과 정체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

¹ 이 논문에는 2021년 8월 30일에 출간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정책보고서 『아시아 문화연구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제2장 1절의 “아시아 연구의 과거와 현재”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졌다.

필자는 신진학자로서의 경험과 통찰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이유는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성과 관련된 담론들이 나온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단순히 연구 대상(research subject)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을 보는 렌즈로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지난 80여 년 간 이어진 담론의 흐름을 보면서 분과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area)”에 대한 개념을 재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와 한국이 겪은 근대 시기의 경험이 매우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서구가 주도한 “지역화(regionalization)”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타자화(othering)해 왔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는 서구 중심적 지역학이 지향했던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비교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간의, 그리고 지역과 세계와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II. 1940~1980년대 구미(歐美)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1. 동남아시아의 등장과 자주적 역사 쓰기

극동(Far East) 지역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경계는 1943년 일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스리랑카에 설치한 동남아시아 사령부(South-East Asian Command)가 그 이전의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사령부(American-British-Dutch-Australian Command)를 대체하면서 공고해졌다(Emmerson, 1984: 7). 1945년 태평양 전쟁의 종결을 기점으로 유럽의 제국들이 주도했던 식민주의라는 세계 지배구조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신생 민족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정당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라는 지정학적 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과 함께 시작했다. 물론 1940년대 이전에도 “동남아시아”라는 지명이 간혹 사용되기

는 했지만, 서구제국 간의 지속적인 영토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경계가 모호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처럼 각기 다른 문명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정의할 때 선택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기도 했다.

잇단 전란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식민통치 기간 수많은 연구 경험과 자료를 축적해 온 유럽 출신의 학자들이 여전히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기수 역할을 했다.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오스트리아학자 로버트 폰 하이네-겔던(Robert Von Heine-Geldern)은 이미 1942년에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왕위 개념(*Conceptions of State and Kingship in Southeast Asia*)』이라는 저서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했고, 영국 역사학자 다니엘 홀(Daniel G. E. Hall)은 1955년에 『동남아시아 역사(*A History of Southeast Asia*)』라는 지역 통사를 썼다. 홀이 쓴 『동남아시아 역사』에는 기존의 동남아시아 지역 관련 저서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로 동남아시아가 유럽제국으로부터의 독립하는 과정을 다루는 마지막 장에서 브루나이(1984년 독립)와 동티모르(2002년 독립)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9개국을 개별적으로 명명했다는 점이다. 즉, 이 책은 신생 민족 국가들의 독립된 주권을 전제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민족국가 역사 모음집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홀은 이 책의 서문에서 기존에 주로 논의되었던 인도와 중국의 문명, 혹은 서구 열강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었던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려할 가치가 충분한 지역임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힘으로써, 지역 중심의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Hall, 1955: vii; Smail, 1961: 72).

홀의 “지역 중심적 접근”의 영향으로 이후 20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 경향은 “자주적 역사(*autonomous history*)” 쓰기가 주도하게 되었다. 홀은 1959년 런던대학에서 퇴임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 방문학자로 1973년까지 있었다. 당시 코넬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존 스메일(John R. W. Smail)은 1961년 “근대 동남아의 자주적 역사 가능성에 대하여(*On the Possibility of an Autonomous History of Modern Southeast Asia*)”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유럽 중심적 시각을 탈피하고, 자주적 주체로서의 “동남아시아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mail, 1961: 100). 스메일은 단순히 유럽 중심적(Europe-centric) 관점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의미로 아시아 중심적(Asia-centric) 관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럽을 동남아시아 민족국가 발전과정에서의 지배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의 구성요소로 바라볼 수 있

어야 진정한 자주적 역사 쓰기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 것이다(Smail, 1961: 74-76, 101). 1959년 코넬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 사학과 교수로 부임한 해리 벤다(Harry J. Benda) 역시 1962년에 쓴 “동남아시아 역사의 구조: 몇 개의 관찰들(The Structure of Southeast Asian History: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이라는 논문에서 동남아시아의 역사가 유럽의 식민주의 역사의 일부로만 조명되어온 것을 비판하며,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이 지역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장애물처럼 여겨진 것 자체가 식민주의의 잔재라고 주장했다(Benda, 1962: 108).²

흠, 스메일, 그리고 벤다가 주장한 “자주적 역사” 쓰기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화(decolonization)의 움직임이 주류가 되어 가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인도의 문명의 교차점으로서, 중화(sinification)와 인도화(indianization)의 과정으로 지역 문화가 정의되어 왔고, 15세기 서유럽 해상제국의 진출 이후에는 스페인화(hispanization)와 같이 유럽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식민지로 규정되어, 동남아시아인의 문화와 생활방식, 사회구조, 관습 등이 강대국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거나 차용된 결과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도널드 에머슨(Donald Emmerson)은 “동남(South-East)”이라는 지리적 명칭이 동쪽으로부터의 중화와 남쪽으로부터의 인도화의 합집합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Emmerson, 1984: 2).

또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가 코넬대학 동남아시아학과를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대 초부터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특기할 만하다(Song, 2013: 419; Dutton, 2007: 139-141). 이미 18세기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반(反)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신흥열강 미국은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한 식민주의 통치구조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

² 벤다와 월터스 등등의 학자들이 쓴 localization이라는 용어는 “지역화”, “지방화”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용어들이 regionalization이라는 또 다른 “지역화”라는 용어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필자는 localization을 “현지화”로 번역해서 썼다.

으로 붕괴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더욱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의 대변자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aid, 1994: 5). 따라서 19세기 초부터 확대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아시아 지역연구가 활성화되었던 하버드나 예일 신학대학교와 달리 1950년에 설립한 코넬대학교 동남아시아학 프로그램 출신 학자들은 기존의 유럽 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한 “동남아시아에서 바라본 동남아시아”라는 자주성을 강조했다.

2. 냉전과 태국 논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냉전과 “태국 논란”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학에 발전을, 후자는 위기를 가져왔다. 냉전시기에 아시아 연구 호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학문 분과는 인류학과 정치학이었다. 정치학 연구는 미국의 대(對)동남아 정책을 창출해 내기 위한 정책 중심적 연구가 가장 성황을 이루었는데, 지역 내의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추거나 두세 개 정부/정권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인류학 역시 동남아시아 사회와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원조 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연구들에 집중하면서, 마치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서구의 동양학의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듯 보였다(McVey, 1995: 13). 비록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인류학 연구들이 미 정부 기관들과 사립재단으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주도한 아시아 연구는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실증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냉전기의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기간(1955~1975), 그리고 그 이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탈출한 전쟁 난민들과 장기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탄압을 뒤로한 정치적 망명자들 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대거 정착한 미국의 서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학 센터가 여러 주립대학교에 설립되기 시작했다(Song, 2013: 402; Keyes, 1992: 12).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전성기라고 불려도 이견이 없을 만큼 냉전의 절정기였던 1960년대에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

스(1960), 미시간대학(1961), 노던일리노이대학(1963), 오하이오대학(1967) 등지에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소가 생겼다. 곧 위스콘신대학(1973), 하와이대학(1978), 워싱턴대학(1986)에도 동남아시아학 프로그램이 생겼다.

한편 “태국 논란(Thailand Controversy)”은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역할에 대해 논란을 가져오며,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에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1970년 3월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캠퍼스의 한 대학원생이 자신이 보조하고 있던 태국 전문 인류학자가 작성한 6개의 문서를 몰래 전미 인류학회(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윤리위원회의 회원이었던 에릭 울프(Eric R. Wolf)와 조셉 요겐슨(Joseph G. Jorgensen)에게 보낸 일이 발생했다.³ 이 문서 중 일부는 당시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위한 한 학생모임이 펴내는 『스튜던트 모빌라이저(Student Mobilizer)』라는 잡지의 4월 2일호에 공개되었다(Wolf et al., 1970). 11월 19일에는 울프와 요겐슨이 쓴 “태국을 응징하려는 인류학(Anthropology on the Warpath in Thailand)”이라는 특별 보고서가 『뉴욕 리뷰 오브 북스(New York Review of Books)』라는 잡지에 발간되면서, 전미 인류학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1971년 2월에 알프레드 맥코이(Alfred W. McCoy)가 미국 정부가 태국 내에서 지원하는 대테러작전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위 “태국 논란”은 절정에 이른다(McCoy, 1971). 울프와 요겐슨, 그리고 맥코이가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미국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유관 기관들이 장학금이나 현지 연구 지원금, 혹은 정부 지원 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지역학 연구자, 특히 인류학자들이 촌이나 오지마을로 들어가 공동체의 사회 구조, 주민들의 정치 성향, 공산주의의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의 반공선전 전쟁과 폭격전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울프와 요겐슨의 글이 출판된 이후에 관련자로 지목이 되거나 의심을 받은 다수의 학자가 직접 답신을 작성해서 잡지에 보내거나, 인류학회를 통해 성

³ 당시 대학원생이 가지고 나온 비밀문서를 작성한 인류학자는 마이클 무어만(Michael Moerman)이라고 알려졌다. 태국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kin(1992)의 저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명을 내는 등 논란은 지속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태국의 부족연구센터(Tribal Research Centre)의 대표를 지내고 전미 인류학회 회장을 지낸 호주 출신의 인류학자 피터 힌튼(Peter Hinton)은 올프와 요겐슨의 보고서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였다(Hinton et al., 1971). 하지만 미 중앙정보부의 지역학 연구 지원정책과 이를 통해 급성장한 사회과학 분야의 사례들은 끊임없이 나왔고, 이에 서구 중심의 지역학에 대한 회의와 학자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미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거세졌다(Jonsson, 2014: 272-274; Petersen, 2015: 530). 올레이푸르 욘손(Hjorleifur Jonsson) 교수는 태국 논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당시의 올프와 요겐슨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특수조건에 무지한 상태에서 일부 사례를 과대 포장하여 폭로함으로써 태국 논란 자체가 마녀사냥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한다(Jonsson, 2014: 264-265).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1975년에 공산정권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게 된다. 1975년 5월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점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충돌이 심화되었고, 이에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는 베이징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다.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는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일련의 비밀 회담을 개최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외교적 고립에 불안감을 느낀 베트남은 1978년 11월 3일에 소련과 우호 조약을 체결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동맹이 자국에 대한 공세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베트남은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17일 만인 1979년 1월 12일에 베트남 인민군은 캄보디아 전역을 점령했다. 바로 그다음 달 2월에 중국은 베트남을 침공하여 동남아시아 내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 했다.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불리는 1978~1979년의 전투는 소련, 중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초강대국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지역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여 주는 한편, 공산당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가 탈식민(postcolonial) 민족국가들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1980년대 공산권 내에서의 분열을 예고하였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이 전쟁을 보고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를 집필하였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창설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후 아세안)에 브루나이가 1984년에 6번째 회원국으로 참가하면서 동남아시아 내에서 지역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1980년대의 동남아시아는 완전한 독립을 이룬 신생 민족국가 10개국(미얀마/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이 공존하는 하나의 독립된 “지역”이 되어갔다(Emmerson, 1984: 16). 1986년부터 개혁 개방을 주창하며 혼합경제를 지향하던 베트남은 1995년에 아세안에 7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도 1997년과 1999년에 회원국이 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의 냉전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III. 세계화 시대의 지역학에 대한 담론, 1990년대~현재

1. 세계화와 지역학의 자기 성찰

1970년대 태국 논란으로 촉발된 “지역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1991년 말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그에 따른 냉전 구조의 붕괴,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냉전 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등장하면서 재점화되었다. 비센테 라파엘(Vicente L. Rafael)은 “태국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기존의 지역학 연구가 사립 재단이나 국가연구재단의 재정 지원에 과하게 의존하다가, 세계화로 인해 사립재단의 연구 지원이 축소되고 지역연구를 지원하는 대학 내 프로그램 자체도 축소되게 되면서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Rafael, 1994: 98). 즉 1990년대 초반에 본격화된 세계화와 이로 인한 재정 지원의 감소로 지역학의 존재 이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7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온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와 포드(Ford), 루스(Luce) 재단 등의 학술연구 후원 재단 관계자들이 미국 내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현황을 살피기 위해 개최한 회의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에 참가한 34명의 학자 중 9명의 발표문을 정리해서 1992년에 나온 편저인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균형(*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은 지역학이 한시적·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생산과 공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처럼 장기적으로 인간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분야가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5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학회지(*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에서 “동남아시아학에 대한 관점들(*Perspectives on Southeast Asian Studies*)”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약 25년간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 경향과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총 16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 특집호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쟁점은 여전히 동남아시아 출신의 지역학자보다는 서구 출신의 연구자들이 학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난 미국의, 그리고 그 이전의 유럽 제국 중심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가장 근본적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족국가(nation-state)” 중심의 지역학이 가진 협소성이다(Reynolds, 1998: 12; McVey, 1998: 37, 49). 이는 지역학을 지리적, 물리적 한계 안으로 가두어 두려는 전통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궁극적으로는 경계를 없애 나가는 세계화의 움직임과 대치된다고 할 수 있다(McVey, 1998: 38; Appadurai, 2001: 4, 7). 둘째는 서구 학자들이 이론의 생산을 주도하고 지역 출신의 학자들이 일차 자료를 제공하는 관계가 가진 한계점이다(Dutton, 2007: 152; Sears, 2007: 8-9). 이 문제는 곧 동남아시아라는 지역학의 지식과 이론의 생산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지역학의 “현지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1990년대의 자아 성찰 과정을 통해 냉전 시기 북미지역 내에서 지역학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따라서 냉전의 종결이 곧바로 지역학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유럽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은 언어학부터 고고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발전했지만, 냉전 시기 미국에서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학 자체가 성황을 이룬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투자했기 때문

에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적인 전성기였다. 특히 집중적인 투자를 받은 사회과학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Scott, 1992: 2). 이에 고벵란(Goh Beng-Lan)은 기존의 지역연구가 미국 사회과학의 노예나 다름없었다는 미 정치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며 1990년대의 지역학의 위기는 실질적으로는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서구 대 비서구의 위계적 관계를 극복한 통합적 지식(synthesis of knowledge) 생산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Goh, 2011: 1, 10).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선언은 기존의 지역학에 대한 재평가와 재정비의 필요성을 실행으로 옮기게 한 계기가 되었다. 수백만 달러의 연구자금이 중동지역연구로, 또 무슬림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 연구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아시아 또한 무슬림 인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2002년 10월 다국적 관광객들이 모여 있던 발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폭탄테러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곧 극우 테러리스트 연구의 주요 지역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전문가도 증가했다. 냉전시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태국과 필리핀 지역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집중된 남부지역에 대한 연구가 순식간에 지역학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21세기의 지역학은 탈냉전이라는 환경 안에서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다.

2. 동남아시아 학자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딜레마

1990년대의 미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에 대한 자아 성찰은 지역 출신의 “토착 학자(indigenous scholars)”들의 등장과 함께 그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유럽인, 미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주도한 데 반해, 199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이들이 출현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전쟁 난민들과 이주민들의 미국 내 정착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들이 배우고 싶은 동남아시아는 그 이전에 연구되어 온 동남아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Keyes, 1992: 13-14).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지역학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귀향”하여 그곳에서 지역학을 연구하고 후학양성에 힘쓰면 동남아시아 각 현지에서 지역학이 부활될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을 너도나도 내어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센테 라파엘은 “이 토착 학자들에게 있어서 ‘귀향(return home)’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집(home)’은 무엇을 의미하고, ‘귀환(return)’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Rafael, 1994: 106). 라파엘은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밟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모국의 역사를 미국에서 “아시아학”으로 공부했다. 그런 그가 부지불식간에 “토착 학자”가 되면서 느꼈던 점을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학에서의 위치(location)와 기구(agency)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라고 표현했다(Rafael, 1994: 105).

인도네시아 출신 인류학자 아르엘 헤르얀토(Ariel Heryanto)는 2002년에 “동남아시아학에 동남아시아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Can there be Southeast Asians in Southeast Asian Studies)”라는 다소 냉소적인 제목의 논문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학자가 소외되거나, 혹은 부재한 상황에서 출현하는 각종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다. 헤르얀토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인들에게조차도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매력적인 학문은 아니라고 하며 지역 출신 학자들이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멀리하게 된 데에는 오랫동안 지역 출신 학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온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으로 헤르얀토는 4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동남아시아 출신 국가에서 받은 민족주의적 교육이 초래한 한계, 둘째는 서구 유학을 선택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 셋째로 언어 장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인들의 접근을 막는 기존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구조의 한계점이 그것이다(Heryanto, 2002: 4, 7).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 초 코넬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자주적 역사 쓰기 운동 이전부터 있었다(Goh, 2011: 2). 다만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현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약했다. 이는 지역 출신 학자 당사자 입장에서 그들의 활동이 미약했던 원인으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헤르얀토와 같은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통차이 위니짜꾼(Thongchai Winichakul)은 “틈새에서의 글쓰기: 동남아시아 역사가와 동남아시아의 탈민족적 역사(Writing at the Interstices: Southeast Asian Historians and Postnational Histories in Southeast Asia)”라는 글에서 “집 학자(home scholar)”라는 용어를 소개하는데, 그가 정의하는 “집 학자”는 토착 학자와 달리 반드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어디에 있든 동남아시아를 자신의 “집(home)”으로 여기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서 한 이들을 의미한다(Winichakul, 2003: 6). 그 역시 지금까지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들이 일차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서구 출신 학자들이 가공해 보편적 이론을 만드는 분업구조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집 학자들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현지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2014년 전미 아시아학회 회장 연설에서 위니짜꾼은 경제개발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등교육학위 소지자의 증가가 이전 서구학자들이 담당했던 지식 생산자(producer of knowledge)의 역할이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시아 출신 학자들에게로 넘어가는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제 아시아 연구를 하는 아시아 출신 학자들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타자에 의해 관찰되어 왔던 아시아라는 지식 객체(object of knowledge)를 바라보는 자신의 위치(position)를 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Winichakul, 2014: 881-882).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지역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지역학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2011년 싱가포르 유솅 이스hak 동남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Yusof Ishak Institute)에서 출간한 『동남아 연구의 탈중심화와 다양화: 지역의 관점에서(Decentring and Diversifying Southeast Asian Studies: Perspectives from the Region)』라는 편저에서는 11명의 동남아시아 출신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 학자로서 활동한 과정을 반추하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고병란은 내부자는 이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바라보는 외부자와 같은 관점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Goh, 2011: 15, 38-39, 44). 서구에서 지역학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으로 꼽히는 동서양의 이분법적 사고(East-West binary)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잔재, 학문 분과와 지역학의 위계적 관계와 충돌, 그리고 민족국가 단위의 분석

들의 한계 등은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 역시 공통으로 느꼈던 문제점들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지역을 자신의 ‘출신지’, 즉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자들과 단지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는 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병란은 아무리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탈식민화와 냉전의 잔재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이라는 개념은 지역 학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로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형성과 실존적 의미에 대한 집단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Goh, 2011: 40; 박장식, 2000: 243).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들에 의한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앞서 본 서구에서의 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장(field) 중심적”이다. 이미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은 그들에게는 현실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장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과연 기존의 서구 중심적 지역학의 잔재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서구 중심적 관점의 안티테제로 제안되었었던 “아시아 중심적” 관점과 같이 “아시아학의 아시아화(Asianization of Asian Studies)”가 여전히 동서양을 가르고 우리(us)와 그들(them)을 나누는 “근대화된 오리엔탈리즘”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등장했다(Dirlik, 2005: 164). 아시아학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 부활한 것이다(Vickers, 2009: 60-63).

3. 지역학의 현지화와 지역화: “아시아적 가치”와 “글로벌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이 자주적 역사 쓰기와 현지화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이유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탈식민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1945년 이후부터 완전한 독립을 갈망하는 동남아시아의 반식민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수양(self-cultivation)”과 “자기 계발(self-development)”을 외치기 시작했다(Reynolds, 1998: 21-22). 다만 자기(self)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냉전이라는 극단적으로 양분된 이념 전쟁을 겪으면서 다수의 신생 민족국가가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총리와 싱가포르의 리관유(Lee Kuan

Yew) 총리가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다.

“아시아적 가치”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아시아”라는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체성을 아시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개념은 1990년대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1970년대부터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들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이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더욱 부상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 국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교 전통이 주목을 받았다(백영서, 2013: 134-137). 사상적 기반이 아시아 문명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식민 민족주의처럼 서구의 것은 반아시아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그 핵심이 유교라는 가면을 쓴 국가라는 정치체가 행하는 권력의 독점, 개인의 자유 제한, 상의하달식의 위계적 사회관계를 정당화함으로써 정치적 근대화보다는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근대화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1994년 리관유 총리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와 한 인터뷰에 대한 논평에서 서구식 의미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동아시아에 적용한다면, 과연 “아시아에는 민주주의에 적합한 철학적, 역사적 토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Kim, 1994: 189-190).

21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라는 개념은 앞서 논의한 서구 중심적 지역학을 극복하고 탈중심화하려는 노력과 지역 내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아시아”라는 용어는 그 역사가 짧고, 사실 아직도 이 개념의 정의와 비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도 없다. 기존 지역학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글로벌 아시아” 학위 프로그램들은 상호 영향, 교류, 연결(interaction, connection) 혹은 탈서구 중심적 관점을 강조한다.⁴ 연구 프로젝트 혹은 기관의

⁴ 대만 국립대학교의 글로벌 아시아 연구센터 소개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만 국립대학교의 글로벌 아시아 연구 센터(GARC)는 아시아 상호 영향과 비교연구를 촉진하고 세계화 시대의 아시아 근대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GARC는 아시아 사회 전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사람, 자본 및 문화의 초국가적 움직임을 조사하는 사회 연구를 권장합니다.” Global Asia Research Center. “About.”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 “글로벌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와 같이 주로 21세기 들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아시아의 부상(rise of Asia),”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 혹은 “아시아 시대(Age of Asia)”와 같은 현상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지향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기존 아시아학 연구와의 차이점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세계적인 맥락(global context)”을 전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혹은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 방법, 접근법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글로벌 아시아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글로벌”이라는 형용사는 21세기의 탈식민지적(postcolonial), 개방 자본주의(liberal capitalist) 중심적 상호교류와 연결 관계라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이고, “아시아”는 오리엔탈리즘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글로벌 아시아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존의 지역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로 이 용어는 서구 중심으로 발달한 역사적 시기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고대와 근현대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글로벌 아시아” 연구 프로젝트들이 근현대사, 혹은 사회 경제학, 사회과학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로 “글로벌 아시아” 역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아시아 강대국에 집중하거나 혹은 이들 지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20세기 후반기에 새로이 등장한 소규모 민족국가들을 여전히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아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세계화된 아시아”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화가 서구화(westernization)나 근대화(modernization)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그 포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기가 힘들다.

약 80여 년 간에 걸쳐 이어진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의 자아 성찰의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학의 존립 이유가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향에 도전받는 때이다. 지역학은 본질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실용주의적 학문이다. 식민주의 시대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사회적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한 동서양 관계의 위계화(hierarchization)를 위해 쓰이고, 냉전

[http://140.112.36.24/?page_id=4765&lang=en#\(검색일: 2022. 2. 23.\)](http://140.112.36.24/?page_id=4765&lang=en#(검색일: 2022. 2. 23.))

시기 이념적 대결을 이용한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해 추구에 실질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급성장했다. 문제는 그 존립 이유가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소위 “위기”라고 특정 지어지는 시기에 자아 성찰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는 서구 출신 학자와 아시아 출신 학자 간의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라는 식민주의의 유산이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와 같은 반식민주의적 정체성의 논리와 충돌할 때이다. 이는 서구의 이론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아예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서의 동남아시아와 고향이자 생활공간으로서의 동남아시아 사이의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 거리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다. 연구자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바라본 지역학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은 비단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Xie, 2021: 12).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은 “토착 학자” 혹은 “집 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그러는 가운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경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IV.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발전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지역학의 본격적인 발전은 1990년대 이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김희순, 2000: 249). 이와 비슷하게 동남아시아 지역학계 내에서도 지역학의 발전 과정을 “1980년대까지 ‘비전 공자에 의한 개관적 지역연구’의 제1세대와 1980년대 해외 유학의 소산인 1990년 이후의 제2세대”로 구분하고 있다(조홍국, 2001: 49). 1990년대가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를 하고 귀국한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동남아학계의 조직화를 이끌면서 지역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라고 한다(박승우, 2009: 216; 전제성, 2013: 9).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역사가 3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서구와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역학

자들도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진 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탈식민화, 냉전 구도, 그리고 세계화라는 국제 질서와 이념적 지형의 변화가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역학에 남긴 잔재를 충분히 실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 왔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서구에서의 지역학은 점진적인 쇠퇴의 길을 걷는 반면에, 오히려 기존의 연구 대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성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이르는 식민주의와 냉전으로 인한 진영의 분단이라는 국제질서하에서 서로 간의 교류가 아주 단절되거나 제한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빗장이 1990년대 초부터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구소련이 1991년 말에 해체되자마자 중국과 베트남과 차례로 수교했다. 세계화 시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등장은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 지역들이 새로운 무역, 상호 안보, 외교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지난 30여 년 간의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시초와 관련이 있다. 1990년을 지역학의 본격적 발전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과연 “비전공자에 의한 개관적 지역연구”로 특징되는 1세대의 역할과 영향은 무엇일까? 물론 현재의 동남아시아 지역학계 내에서 1세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조흥국은 일본과 대륙부 동남아, 특히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김영건이라는 학자를 발견했고(조흥국, 2001: 49),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를 “미지의 시대”로 규정한 전제성은 이 “황무지”처럼 여겨졌던 시기에 많은 선구자들이 등장했었음을 인지했다(전제성, 2018: 4-9). 다만 1세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박승우는 “이들의 작업은 동남아 지역을 학계와 일반에 소개하는 데 국한되었으며, 본격적인 지역연구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박승우, 2009: 209). 전제성은 이에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초창기는 “탈중심의 개인사”로 살펴보자고 제안했다(전제성, 2018: 9).

이와 달리 전문적인 지역학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 한국이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적 단위, 혹은 독립적 민족국가 단위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과거

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국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지향점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동질성과 차별성을 찾아내기 시작한 태평양 전쟁시기, 즉 1940년대를 지역학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김예림은 이에 “동양이나 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지식체계나 얇의 편제와 관련하여, 이 시기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남한의 지(知)의 구성을 우리는 ‘유사(quasi) 지역학적 편성’이라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김예림, 2012: 137). 한국의 지식인들의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반식민주의의 동지애에서 1955년 반동회의를 전후하여 중립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로 전환되면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탈식민 초기에 비하면 줄어들거나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관찰들도 지역학의 시초를 이해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임종명, 2010: 146; 김예림, 2012: 152; 장세진, 2011: 159-160).

이와 더불어 1980년대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가 언어와 문학에 대한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 목적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해당 학과의 연구자들이 교과목과 관련한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흥국, 2001: 51). 현지 언어 사용능력이 지역학의 발전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던 이유는 언어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존의 서구학자와 지역학자들 간의 수직적 분업 관계의 타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Winichakul, 2014: 891-894; Rafael, 1994: 105-106). 그리고 지역학 연구에 필수적 요건으로 주창되는 현지 조사(김동엽 2021, 43; 김희순 2000, 252; 조흥국 2001, 58)는 연구자들이 현지 연구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및 인적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연구자 개인의 현지 언어 구사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동남아시아 언어학자들, 그리고 이 언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문학 또한 지역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제성이 지적한 “어문학과 나머지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분절 현상, 한국 외대 출신 학자와 그 밖의 대학 출신 연구자들 사이의 분절 현상”(전제성, 2018: 17), 더 나아가 1980년대까지 동남아시아 언어와 문학에 관한 연구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확장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간의 분절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요구가 어떠한 성격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1세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담론인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혹은 지역학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지향점” 혹은 “연구 목표”와 “연구 방법”에 대한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미 다수의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이 “정책 중심적” 혹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지역학 연구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앞서 논한 냉전시기 사회과학 분야의 급성장과 인류학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논란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비전문가가 한국 중심적 입장에서 정책, 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비판적으로 정부나 발주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정책성 연구 프로젝트들은 단기적 결과물에 의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윤환, 2015: 55, 60).

두 번째 쟁점은 연구 방법에 관련하여, 주제의 독창성의 문제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의 문제들이다. 이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역사가 짧다는 조건과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짧은 만큼 축적된 연구의 양이 충분하지 않고, 연구가 국가 단위로, 혹은 분과의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記述的)·정태적 연구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다(박승우, 2009: 250; 신윤환, 2015: 60). 상대적으로 축적된 연구 결과가 적다 보니 외국의 2차 문헌을 번역, 요약 정리하는 수준의 연구가 나오고, 서구 학자들의 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모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조흥국, 2001: 57). 이는 앞서 논의한 지역 출신의 토착 학자와 서구 출신의 학자들 간의 수직적 분업 관계의 논의와 연결지어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과연 한국 출신의 학자들이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만하다.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토착 학자도, 그리고 비서구 출신 집 학자도 이미 80여 년 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하고 뿌리를 내린 지역학계 내에서 그들만의 독창적 연구주제나 보편적 이론 정립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서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역학에 대한 논의에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발전과정에서 나온 지역학의 자주성과 정체성의 문제,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불균형 성장, 그리고 지역학의 중심을 현장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 모두가 기존의 서구의 동남아시아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과 논의가 서구에서 지역학의 위기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역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계화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불러온 자아 성찰의 계기가 동남아시아와 한국 지역학계 모두에 동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V.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학 “집 학자” 양성하기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한국 중심적”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은 “한국 중심적” 관점으로 동남아시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기존의 서구 중심의 아시아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동남아시아학 연구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는 아시아인이 주체가 된 아시아 연구의 방향성 문제이다. 여기서 아시아인이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나는 이 지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가 특정 학문적 또는 이론적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개척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한 고병란의 글이 주목할 만하다(Goh, 2011: 35). 즉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방향성은 우선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시간과 공간의 변동성을 고려하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시아 연구에서 서구우월주의는 서구 출신의 학자가 포괄적, 보편적 이론의 생산자 역할을 하고, 비서구 출신의 학자, 특히 아시아 출신의 학자가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거나 일차자료 제공자 혹은 번역자 역할을 함으로써 실체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토착 학자나 집 학자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이들을 부수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리 하루투니안(Harry Harootunian)과 마사오 미요시(Masao Miyoshi)는 『학습 공간: 지역학의 사후 세계(Learning places: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라는 편저의 서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 외의 지역들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의 분할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들의 지역학 연구와 맺었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Harootunian and Miyoshi, 2002: 14). 지역학자의 물리적, 지리적 위치, 그리고 서구적 관점과 이론이 보편적이라는 편견이 그들의 관점을 결정해 왔던 기존의 관습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연구자의 국적이 아시아 국가 소속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시아 중심의 관점에서 아시아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보았듯이 아시아 출신의 학자가 지역의, 혹은 국가 단위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신의 연구가 내놓은 이론과 사례가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연구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지역의 특수성을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이론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시아에서 아시아 연구를 하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박승우, 2009: 250). 특히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독자성보다는 “다양성(diversity)”을 매개로 한 세계적 보편성 획득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중심의 관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시아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 보편성(universalism)과 개인성(individualism) 혹은 고유성(unicqueness)이 상충하는 개념인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인지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동시에 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 환경, 혹은 조건들을 전 세계적 기준에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에 기반한 지역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이 정부나 기업이 지원하는 단기성 프로젝트에 묶여 있게 되면서 무비판적인, 혹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친다. 하지만 지역학은 본질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실용주의적 학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이 학문 분야의 성격과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은 기존의 양자 외교나 동맹외교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학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배경과 목표 아래 급격히 발전한 동남아시아 연구는 자연스럽게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사례만 보아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연구하는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과 정치학, 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 교육(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개발에 연구자가 몰리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Winichakul, 2018: 170-174). 그리고 그것이 이기적이든 상호 호혜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는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게 된다.

필자는 비록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결과물의 양적 성장이 만들어 낸 이 지역과 지역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상업적 출판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무분별한 동남아 관련 서적의 범람”으로 “동남아를 단순한 호기심과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전략”시키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신윤환, 2015: 55). 하지만 2007년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과 소셜미디어의 확장으로 출판물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대중적 영향력이 줄고 있는 현실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이 가진 가능성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문화를 바라보는 창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시아로의 취업, 결혼, 교육 등등의 목적으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된다(조영희, 2019).

지역학의 실용주의 중심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분명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 다만 “학문으로서의 위상 특히 기존의 분과학문들과의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분과학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분간 확정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비교적 ‘느슨한’ 범위와 방법론을 가진 지역연구는 그 성격이야 어쨌든 폭넓은 연구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조흥국, 2001: 48)”라고 말한 원로학자의 통찰력은 지역학을 확장하거나 축소되게 만드는 시대성보다는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성”과 “유용성”에 부응하면서도, 그 자

원을 새로운 연구의 결과물 생산이나 후속 양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탄력성(resilience)”과 “헌신(commitment)”에 집중해야 함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필자는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연구가 “한국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을 찾기 이전에 한국 내의 아시아 그리고 지역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그리고 학계와 사회의 평가는 과거의 편견이나 미래의 실용성에 대한 기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아시아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심-주변 관계의 효과”를 목표로 한 “열린 지역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백영서, 2013: 78). 지역학이 본격적 학문으로 자리 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직접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들과 지역들은 그들의 경험이 매우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서구가 주도한 지역화(regionalization)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타자화(othering)함으로써 이 두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아시아학 간의 상호 연결성(interconnectedness)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가 지역학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에 집중하고 분석한 이유도 한국의 경험과 동남아시아가 겪은 경험이 서로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다른 아시아(Other Asia)”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는 없는지에 대해 재고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연구의 확장과 동남아시아 지역전문가들 간의 교류 활성화, 그리고 후속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학자들과 지역 내 아시아 지역학 연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⁵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 시대의 시작, 그리고 이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의 증대와 아세안 국가 내에서 일어난

⁵ 물론 이러한 노력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초지역적 학술 네트워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3년에 설립된 아시아동남아학대회 컨소시엄(SEASIA: Consortiu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Asia)이다. 한국 동남아학회는 창립멤버로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만이 참여하고 있다.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Kyoto University(2014);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갤러리. “SEASIA(아시아동남아학대회) 컨소시엄 운영회의”, 2022년 6월 13일. <https://jiseas.jbnu.ac.kr/bbs/jiseas/2236/267550/artclView.do>(접속일: 2022. 9. 18.).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아시아 지역학,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면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사건 간의 연결성을 찾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라파엘이 주장했던 귀향학자들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헤르얀토가 주장했던 기존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만들어 낸 진입장벽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은 “집 학자”로서 “토착 학자”들과의 협력적 관계 증대를 통한 국내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전성기를 만들어 낼 기회를 모색해 볼 만하다.

VI. 결론

기존의 아시아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연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면 앞으로의 아시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미지의 땅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관찰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략적 연구까지 지역학의 탄생 계기는 다양하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이 기존의 서구열강을 대체하는 초강대국으로 변모하면서 지역학의 메카가 되었고, 20세기 후반부에 지역학은 실용주의적, 사회과학 중심적, 정책 지향적 학문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성장이 빨랐던 만큼 성장통도 컸고, 이에 대한 자기성찰도 이루어지게 된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세계화 시대가 열리고, 이전의 연구대상이었던 동남아시아와 한국에서도 상호 간의 교류가 부흥하면서 지역학도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지역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전한 동남아시아 지역학 역시 성장통을 겪게 된다.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끊임없는 자아 성찰의 계기들, 그리고 주요 담론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의 방향성은 이 지역연구가 특정국가 전문가나 하나의 전공 분야나 이슈에 한정된 분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과 거대서사(metanarrative)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지역학자들은 국가나 학문 분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물리적이면서도 상상된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관점 안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적 특수성, 혹은 지역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역학이 가질 수 있는 정통성과 보편성이 과연 그 현지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재고도 제안하고 싶다. 아시아 중심적 관점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 그리고 보편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듯이,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남아시아 지역학 역시 자국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고, 오히려 한국과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간의 차이점, 혹은 타자성이 더 강조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학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지역 사이의 간극을 넓히는 것보다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이에 기반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각자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혹은 다양성을 함께 견지할 수 있는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한국 출신의 동남아시아 “집 학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출신의 토착 학자와 집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협력”에 기반한 지역학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료 학자들에게는 동남아시아로 현지 조사를 하러 가는 일이 대체로 비용과 시간이 기대되는 결과물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과도 같았다.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길은 가깝고 시차도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집 학자”들에게 있어서 동남아시아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다른 종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투고일: 2022년 4월 30일 | 심사일: 2022년 10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참고문헌

- 김동엽. 2021. “지역연구로서의 '아세안 연구': 학술적 함의와 현실적 필요성.” 『동아연구』 40(1), 33-75.
- 김예림. 2012.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론 동남아시아를 정위하기.” 『아세아연구』 55(1), 130-161.
- 김희순. 2000.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과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5(2): 243-258.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박장식. 2000. “동남아시아 지역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비.” 『동남아시아연구』 10, 221-244.
-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파주: 창비.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1. 『아시아 문화연구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신윤환. 2015.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37-75.
- 임종명. 2010. “脫식민 초기(1945.8-1950.5), 남한국가 엘리트의 아시아 紀行記와 아시아 表象.” 『민족문화연구』 52, 143-197.
- 장세진. 2011.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31, 123-171.
- 전제성. 2018.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동남아시아연구』 28(4), 1-29.
- _____. 2019. “한국에서 동남아학계의 형성과 발전.” 안청시. 전제성. 편,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2-2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제성·박사명·김현경. 2021.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 『동아연구』 40(1), 1-32.
- 조영희. 2019. “국제이주로 보는 한-아세안 지역협력.” *Diverse Asia* 1(5), 1-6. <https://diverseasia.snu.ac.kr/?p=2723>(검색일: 2022. 3. 25.).
-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47-67.
- Appadurai, Arjun, ed. 2001. *Globalization*.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Benda, Harry J. 1962. “The Structure of Southeast Asian History: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3(1), 106-138.
- Bonura, Carlo and Laurie Sears. 2007. “Introduction: Knowledges That Travel in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Laurie Sears, ed. *Knowing Southeast*

- Asian Subjects*, 3-32. Seattle; Singapo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in association with NUS Press.
-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Kyoto University. 2014. "Consortiu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Asia (SEASIA)." *CSEAS Newsletter* No. 69 (Spring 2014), 5-7.
- Dirlik, Arif. 2005. "Asia Pacific Studies in an Age of Global Modernity." *Inter-Asia Cultural Studies* 6(2), 158-170.
- Dutton, George. 2007.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east Asia: Missing Links." Laurie Sears, ed. *Knowing Southeast Asian Subjects*, 139-171. Seattle; Singapo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in association with NUS Press.
- Emmerson, Donal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21.
- Goh, Beng-Lan, ed. 2011. *Decentering and Diversifying Southeast Asian Studies: Perspectives from the Region*. Singapore: ISEAS Singapore.
- Hall, Daniel G. E. 1955.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Melbourne; New York: Macmillan; St. Martin's P.
- Harootunian, H. D. and Masao Miyoshi, eds. 2002. *Learning Places: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Heryanto, Ariel. 2002. "Can there be Southeast Asians in Southeast Asian Studies." *Moussons* 5, 3-30.
- Hinton, Peter, George M. Foster, and A. J. F. Koebben, reply by Eric R. Wolf and Joseph G. Jorgensen. 1971. "Anthropology on the Warpath: An Exchange." April 8. <https://www.nybooks.com/articles/1971/04/08/anthropology-on-the-warpath-an-exchange/>(검색일: 2022. 2. 7.).
- Hirschman, Charles,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1992.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Ann Arbor, MI: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Jonsson, Hjorleifur. 2014. "Phantom Scandal: On the National Uses of the 'Thailand Controversy'." *Sojourn* 29(2), 263-299.
- Keyes, Charles. 1992. "A Conference at Wingspread and Rethinking Southeast Asian Studies." Charles Hirschman,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9-24. Ann Arbor, MI: The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Kim, Dae-Jung. 1994.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73(6), 189-194.
- McCoy, Alfred W. 1971. "Subcontracting Counterinsurgency: Academics in Thailand 1954-1970."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3(2), 56-70.
- McVey, Ruth. 1995. "Change and Continuity in Southeast Asian Studie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6(1), 1-9.
- _____.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Craig J. Reynolds and Ruth McVey, eds.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37-64. Ithaca, NY: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 Park, Seung Woo. 2013.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Seung Woo Park and Victor T. King, ed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orea and Beyo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12-155.
- Petersen, Glenn. 2015. "American Anthropology's 'Thailand Controversy': An Object Lesson i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ojourn* 30(2), 528-549.
- Rafael, Vicente L. 1994. "The Cultures of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Text* 41, 91-111.
- Reynolds, Craig. 1998. "Self-Cul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Postcolonial Southeast Asia." Reynolds, Craig J. and Ruth McVey, eds.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7-35. Ithaca, NY: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 Said, Edward W. 1994.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cott, James C. 1992. "Foreword." Charles Hirschman,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Ann Arbor, MI: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8.
- Sears, Laurie. 2007. "Introduction: Knowledges That Travel in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Laurie Sears, ed., *Knowing Southeast Asian Subjects*, 3-32.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ingapore: In association with NUS Press.
- Smail, John R. W. 1961. "On the Possibility of an Autonomous History of Modern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2(2), 72-102.
- Song, Seung-Won. 2013.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U.S.: Construction of

- Traditions of an Autonomous History, It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Park, Seung Woo and Victor T. King, ed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orea and Beyond*, 399-42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ickers, Adrian. 2009. “Southeast Asian Studies After Said.” Keynote Address at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utheast Asia. Kuala Lumpur, December 9.
- Wakin, Eric. 1992. *Anthropology Goes to War: Professional Ethics and Counter-insurgency in Thailand*. Madison, WI: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Winichakul, Thongchai. 2003. “Writing at the Interstices: Southeast Asian Historians and Postnational Histories in Southeast Asia.” Abu Talib Ahmad and Tan Liok Ee, eds. *New Terrains in Southeast Asian History*, 3-29. Singapore; Athens: Singapore University Press; Ohio University Press.
- _____. 2014. “Asian Studies Across Academies.” *Journal of Asian Studies* 73(4), 879-897.
- _____. 2018.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Age of STEM Education and Hyper-utilitarianism.” *Suwannabhumi: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2), 215-228.
- Wolf, Eric R. and Joseph G. Jorgensen. 1970. “A Special Supplement: Anthropology on the Warpath in Thailand.”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ovember 19, 1970 Issue, <https://www.nybooks.com/articles/1970/11/19/a-special-supplement-anthropology-on-the-war-path-i/>(검색일: 2022. 2. 7.).
- Xie, Kankan. 2021. “Experiencing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A Reverse Culture Shock.”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published online June 8. doi:10.1017/S0022463421000473.

Abstract

Discourses of the Southeast Asian Studies' Identity and Sustainability

Sinae Hyun Sogang University

The article examines the discourses around the identity and sustainability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compares them to those of Korean Southeast Asian studies. The article consists of four main parts, the first two being dedicated to the study of the Southeast Asian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the last two focusing on the Korean case. After briefly surveying the debates around autonomous history, regional identity, and the “Thailand controversy”, the second part delves into the so-called area studies crisis in the 1990s and the rise of “indigenous” and “home scholars” in the area studies. The same part elaborates on the “transition” of the area studies from West to Southeast Asia and how the local scholars have responded to the so-called “Asianization of the Asian Studies”. In the latter half of the paper, these historical discourses become a lens to view Korean Southeast Asian studies. The third part examines the debates around the beginning of the area studies in Korea and research methodologies and approaches. The fourth part deals with the feasibility of taking the “Korean perspectives” in Southeast Asian studies.

Keywords | Southeast Asian Studies, identity, sustainability, discourse analysis